

익산시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7월부터 지급

제1호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 설비 하반기부터 운영 어르신 28명에 매달 10만원씩

익산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농촌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인 '마을자치연금'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익산시는 마을공동체 주요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상반기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주까지 태양광 설비 설계를 완료했으며 업체와 설치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태양광 인·허가를 획득한 날로부터 2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관련 부서와 전기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7월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28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이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의 제1호 예비사업체 법인으로 선정돼 사업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현재 제1호 예비사업체법인으로 '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 사업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발

전수익금과 마을사업수익으로 연금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마을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체험과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캠핑장 등 시설 입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은 자체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 마을공동체법인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1500만원 이상으로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수익 기반이 되어 한다.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마을공동체 운영 수익을 분배해 마을에 거주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마을자치연금 프로젝트는 고령화된 우리 시 농촌 마을에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을 마을자치연금은 익산의 대표적 언어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연 기자 yjy@kwangju.co.kr

농사도 유튜브 시대 정읍농기센터 '농튜버' 교육



정읍시는 '농튜버' (농업 유튜브) 육성을 위해 '유튜버 마케팅 기초과정 교육'을 개설, 운영한다.

농사도 유튜브 시대. 정읍시는 농산물 마케팅의 새 유통창구로 떠오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인 '농튜버'를 육성한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6일까지 8회 32시간에 걸친 '유튜버 마케팅 기초과정 교육'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화하는 가운데 농업에서 더 세분화되는 농가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취지로 마련됐다.

유튜버 마케팅은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자의 영상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생생히 확인한 후 구매한다는 점에서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지난해 실시했던 관련 교육에서도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았다. 정읍시는 올해도 '1인 미디어의 이해와 유튜브 채널 운영 실전', '다양한 동영상 촬영기법'과 '성공적인 채널 운영 노하우' 등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단계적인 유튜버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자원의 영상 콘텐츠 발굴과 지역농업인 및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33억원 투입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고창군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2021년도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총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0여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가림 재배시설은 식재시기를 앞당기고 수확 시기를 연장해 노지재배보다 생산량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또 병해충 피해를 낮춰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이는 등 농작업이 수월해져 고추나 특화작물 재배 농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고창군은 1동 660㎡ 기준으로 보조금 66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1320만원을 지급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첨단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춘향이 보리 열차 타고 남원 놀러가세"

남원시·철도공사 관광상품 개발 협약

남원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고자 열차 관광상품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지 조명과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시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오는 11월까지 코레일과 함께 '열차 타고 남원 놀러가세'란 주제의 열차상품 등 다양한 계절·테마 관광 상품의 시종투어 상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관광 상품인 '열차타고 남원 놀러가세'의 경우 열차를 이용한 개인 및 소규모 단위의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열차 이용객이 남원시 종합관광안내소를 거쳐 지역 내 음식점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보여준 뒤 지정 관광지 2곳(남원다움관, 광한루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등)을 방문하고 인증샷(해시태그 필수)을 남기면 남원사랑상품권 5000원이 증정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포스트 코로나 여행트렌드인 '비대면·소규모·자유여행'에 따라 철도 관광 상품 운영으로 남원시를 좀 더 가깝고 친숙한 여행지로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철도를 연계한 관광상품 확충,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택시 활용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작은여행, 자율여행, 근거리 여행을 찾는 개인 및 가족단위의 소규모에 맞는 철도상품 구성과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최근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지난 2014년에도 서대전에서 출발하는 남도해양열차(S-train)와 연계한 정기열차 상품과 바레봉 철쭉제 및 춘향제 등 주요 축제 및 이벤트와 연계한 임시열차 운행상품 등을 운영한 바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의 매력관광 자원과 축제·공연·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철도 여행상품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남원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재조명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특제 순창청국장, 패혈증·급성위염에 효과 탁월

순창 유래의 미생물이 활용된 청국장이 패혈증과 급성위염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건국대학교가 개발한 특제 '순창청국장' (사진)이 동물실험을 통한 기능성 분석 결과 염증성 질환인 패혈증 및 급성위염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순창청국장'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특허출원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진흥원과 건국대에서 개발한 '순창청국장'은 잠재적 프로바이오틱스 활성을 가진 '고초균'을 활

용해 만들어졌다.

실험용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패혈증을 유도한 생쥐는 36시간 후 모두 폐사했다.

하지만 '순창청국장'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생쥐는 농도에 따라 생존율이 높아지고 혈중 염증지표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급성위염을 유발한 생쥐도 청국장 추출물 섭취 농도에 따라 위염지표가 감소했다.

패혈증과 급성위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청국장 추출물 제조방법과 용도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고 향후 식품제조업체와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제품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황숙주 군수는 "전통식품의 다양한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수 발표돼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순창장류의 세계화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순창장류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예정인 120억원 규모의 '전통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